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0년 **6**월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0년 6월

---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	5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33
제 3 장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경제전망 .....	43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57

---

## 부록

경제정책정보 .....	65
주요경제통계 .....	70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이 수 희  
권 영 민  
남 광 희  
박 승 록  
이 인 실  
황 인 학  
김 주 호  
김 창 배

선임연구위원

<가나다순>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산업생산/고용/소비/투자/경기
2. 대외거래부문  
수출입/국제수지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수출입물가
4. 통화·금융부문  
통화정책/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금리/환율 및 외환보유고

##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미국/일본/EU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 제3장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통화정책/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 금리/환율

##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 현황

## 2. 향후 거시경제 정책방향

## 제 1 장

# 국내경제동향

### 1. 실물부문

경제성장: 10% 이상의 고속 성장세 지속, 성장속도는 소폭 둔화

- 2000년 1/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의 큰 폭 증가와 수출 신장세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하여 지난 해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두자릿 수 성장세 지속.
-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특수산업용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등 기계류 전반에 대한 투자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5.3% 증가
- 수출은 수출 주종품목인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통신장비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증가세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5.1% 증가.

<표 1>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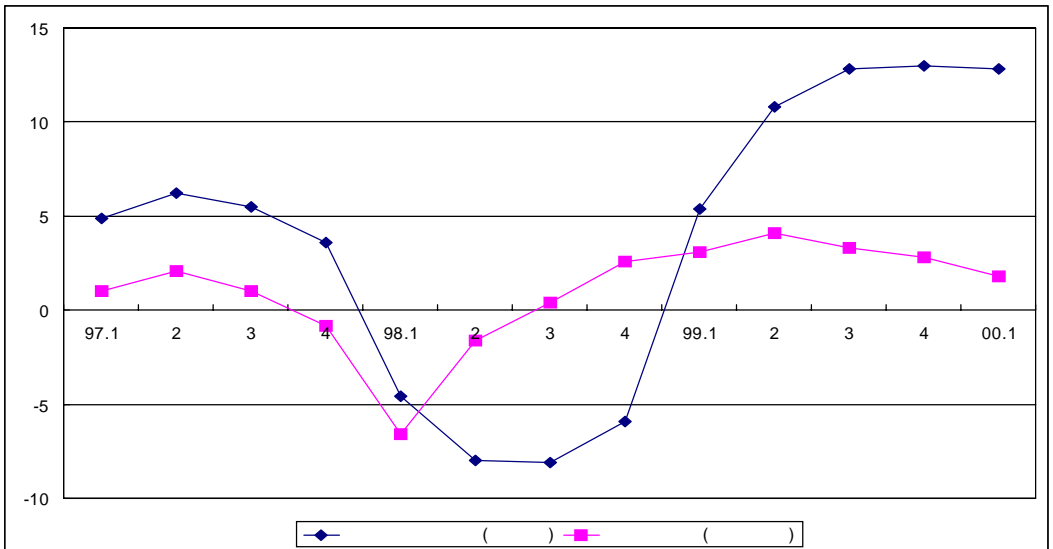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연간	2000
	연간	상반			하반				연간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6.7	5.4	10.8	8.1	12.8	13.0	12.9	10.7	12.8
민간소비	-11.4	6.7	10.3	8.5	12.1	12.1	12.1	10.3	11.2
정부소비	-0.4	-2.0	-1.7	-1.8	0.1	0.8	0.5	-0.6	0.7
건설투자	-10.1	-13.6	-8.5	-11.1	-9.8	-10.2	-10.0	-10.3	-7.0
설비투자	-38.8	13.0	37.3	25.2	48.5	55.1	51.8	38.0	63.6
총 수출	13.2	9.2	14.6	11.9	20.0	21.0	20.5	16.3	25.1
총 수입	-22.4	27.3	28.3	27.8	32.3	28.0	30.2	28.9	31.3

자료: 한국은행

■ 그러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경제성장률(GDP기준) 추이





- 1/4분기중 계절조정 실질GDP가 전기대비 1.8%증가에 그침으로써 지난 해 2/4분기 이후 성장속도 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생산활동 : 생산 및 출하 증가율과 평균가동률 하향세**

- 생산, 출하 등 생산활동은 내수신장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금년 들어서도 활기를 지속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둔화되는 모습.
- 생산은 1/4분기와 4월중 각각 전년동기대비 23.4%, 17.6%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호조를 지속.
- 그러나 2월까지 20%대의 증가율을 보인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3~4월중에는 10%대로 낮아지는 등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
- 재고는 1/4분기와 4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11.3%, 12.3%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 4월중 전월비 재고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총선과 파업의 영향.
-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0%를 하회하고 있으며 4월중에는 자동차 파업 및 총선의 영향으로 76.4%로 크게 하락.

<표 2>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생 산	-6.5	14.1	24.6	28.5	28.9	24.2	23.4	16.9
· 중 화 학	-3.8	18.5	30.1	34.6	33.1	29.3	27.1	20.8
· 경 공 업	-15.6	0.5	9.5	12.2	16.3	9.6	10.5	2.9
출 하	-8.6	14.6	25.1	28.8	31.0	25.1	25.0	14.2
· 내 수	-22.8	9.5	21.4	27.4	26.1	21.1	23.7	12.7
· 수 출	24.1	22.2	30.5	30.7	37.7	30.6	26.6	16.3
재 고	-17.0	-17.7	-15.6	-8.4	2.1	2.1	11.3	12.3
계절조정전기비	-17.0	-5.8	-0.3	3.0	5.3	2.1	3.1	-0.6
평균가동률(%)	68.0	70.8	76.0	79.6	79.8	76.6	79.6	76.4

주: 재고는 기말기준

자료: 통계청

**고용: 개선추세 지속**

- 지난 해 2/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이 확대되고 계절조정 실업률도 하향추세를 지속.
-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일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진정되면서 고용구조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

<표 3> 고용관련 지표 추이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경제활동참가율(%)	60.7	58.6	61.0	61.2	61.2	60.5	59.5	60.9
취업자(천명)	19,994	19,105	20,362	20,695	20,962	20,281	20,313	21,065
증가율(전년동기비,%)	-5.3	-3.3	0.6	3.2	3.2	1.4	6.3	4.9
실업자(천명)	1,461	1,748	1,435	1,220	1,011	1,353	1,092	900
실업률(%)	6.8	8.4	6.6	5.6	4.6	6.3	5.3	4.1
계절조정실업률(%)	6.8	7.6	6.7	5.9	4.9	6.3	4.4	4.0
상용직 비중(%)	53.0	50.9	47.9	47.6	47.1	48.4	47.6	47.3
임시및일용직 비중(%)	47.0	49.1	52.1	52.4	52.9	51.6	52.4	52.7

자료 : 통계청

**소비 : 높은 증가세 소폭 둔화**

- 경기확장국면의 지속으로 내구재소비를 중심으로 하여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표 4>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도소매판매	-12.7	6.9	11.6	17.6	15.7	13.0	14.4	11.4
· 도 매	-8.3	3.9	10.2	15.9	13.3	11.4	13.5	9.7
· 소 매	-11.1	3.9	8.1	13.3	13.9	9.8	12.5	15.3
· 자동차·연료	-34.3	30.3	23.6	41.5	35.9	33.0	26.0	6.9
내수용소비재출하	-21.0	14.7	18.5	26.0	24.6	21.1	17.7	16.6
· 내 구 재	-27.4	42.8	34.4	63.9	50.3	48.0	35.8	36.7
· 비내구재	-17.9	4.1	11.5	10.3	12.8	9.6	8.4	6.3

자료: 통계청

- 도소매판매액은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할인판매로 소매업의 판매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동차판매 및 도매업 판매가 둔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
- 내수용소비재출하는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소비재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비내구소비재 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증가율이 둔화.

**투자: 설비투자 호조, 건설투자 부진 지속**

- 금년 들어서도 설비투자추계 등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의 높은 증가세 지속.
- 기계류내수출하와 기계류수입액이 5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도 산업용기계,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약 60% 증가.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의 발주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운수업차량 발주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

**<표 5>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국내기계수주	-30.5	16.7	38.7	22.6	13.8	22.6	18.2	25.1
· 공 공	-45.1	4.4	78.5	-0.4	-5.6	14.2	16.3	17.8
· 민 간	-27.3	18.5	33.4	27.1	17.5	24.0	18.4	25.7
기계류수입액	-52.9	8.0	20.3	45.4	62.0	33.5	63.7	60.2
설비투자추계	-37.7	12.0	48.1	54.2	61.9	43.5	57.3	60.2
설비용기계내수출하	-37.7	1.6	36.1	45.6	46.8	32.3	63.8	47.1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 지난 해 9월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감소세 지속의 영향으로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1/4분기와 4월중 감소세 지속.
- 반면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상승세를 지속. 1/4분기중 국내건설수주는 민간 주택발주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며 건축허가면적도 공업용을 비롯한 상업용 및 주거용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여 높은 증가세 보임.
- 단, 4월중 국내건설수주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공공부문의 대규모 경기장 발주가 있었던 지난해 4월의 상대적인 영향.

<표 6> 건설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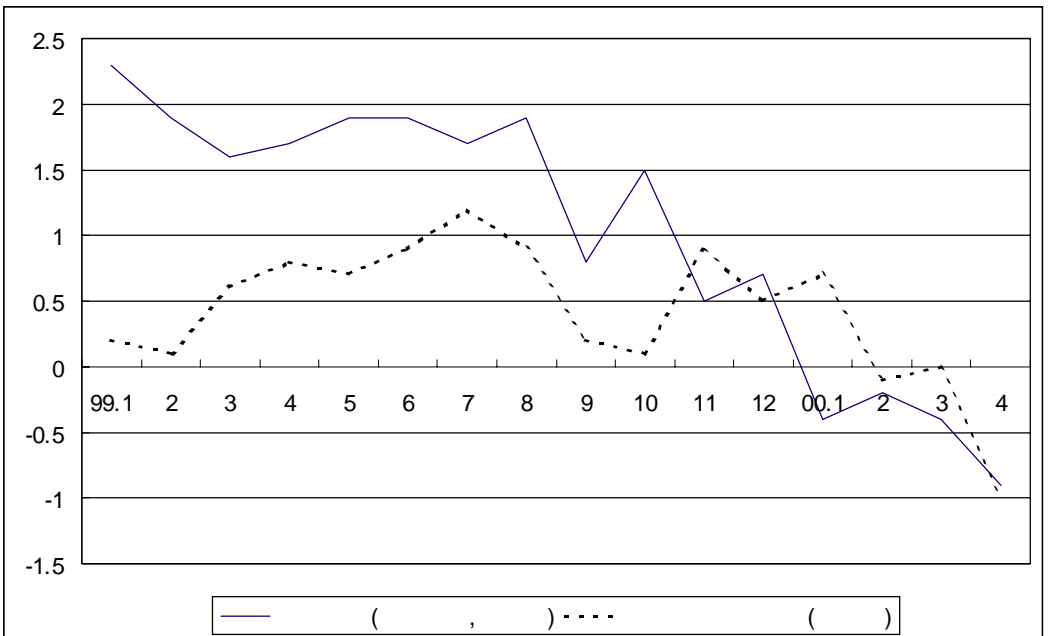
	1998	1999					2000		
	연간	1/4	4월	2/4	3/4	4/4	연간	1/4	4월
국내건설수주	-42.6	-45.3	38.2	27.1	13.4	18.0	0.8	75.9	-4.4
· 공 공	-21.4	-53.8	81.3	-12.6	-35.0	-21.9	-30.9	16.2	-30.6
· 민 간	-57.6	-30.7	5.9	65.7	93.5	117.7	51.7	123.4	29.0
건설기성	-	-1.0	2.3	3.8	3.7	-1.8	1.2	-6.4	-6.5
건축허가면적	-55.0	-45.8	4.1	22.4	76.6	173.4	42.3	90.6	101.2
· 공업용	-68.2	24.2	64.5	177.0	242.6	288.4	179.8	266.0	260.0

자료: 통계청

경기: 급속한 경기상승국면 이후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우리 경제가 98년 8월을 저점으로 급속한 경기상승국면을 지속함.
- 99년 9월부터 경기종합지수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며 경기가 점차 진정되는 국면을 보임.
- 선행지수가 금년 들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월중 하락세로 반전.

<그림 2> 경기종합지수 추이



## 2. 대외거래부문

### 수출 : 호조세 지속 (1~5월중 27.2% 증가)

- 수출은 1~5월중 27.2% 증가하여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수출규모는 5개월 연속 월중 사상 최대를 기록.
- 이는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한 물량증가와 함께 주요수출품목(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의 단가상승으로 수출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

<표 7>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추이

반도체 (64M D램,개당)	5.93달러(3월) -> 6.51달러(4월) -> 6.65달러(5월)
철강제품(냉연강판,톤당)	383달러(2월) -> 387달러(3월) -> 391달러(4월)
화공품단가지수(전년동월비)	25.6%(1월) -> 27.2%(2월) -> 36.6%(3월)

- 품목별로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요수출품목의 수출호조로 중화학제품이 40% 가까운 신장세를 보였으며 경공업제품도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 지역별로는 미국 및 EU지역 등 선진국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및 중동지역 등 대개도국 수출도 빠르게 증가함.
- 선진국시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및 석유류제품이 개도국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등이 호조를 보임.

<표 8> 품목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1999					연간	2000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4월	5.1-20	
○ 중화학제품	0.9	5.1	23.1	29.3	14.8	42.7	47.0	29.1	38.6	23.4	45.6	
- 반도체	13.4	12.3	13.4	5.4	10.8	17.2	17.2	18.1	17.4	30.2	52.3	
- 자동차	3.1	16.0	39.2	-1.7	12.3	45.3	72.2	25.7	43.5	-10.3	130.9	
- 철강제품	-23.6	-24.6	-7.7	6.7	-13.4	26.2	27.4	15.3	22.4	23.1	49.3	
- 석유화학	-12.4	-11.3	18.9	30.1	5.6	46.9	53.3	38.8	46.1	48.7	86.1	
- 일반기계	0.3	-4.1	9.6	10.3	4.0	28.8	27.7	39.9	32.6	33.6	57.8	
- 컴퓨터	18.3	64.8	114.8	203.6	103.1	154.7	128.7	89.5	121.4	79.5	67.4	
- 가정용전자	-4.3	12.1	28.0	67.0	22.5	55.4	49.4	27.3	42.0	16.1	29.9	
- 선박	2.4	-22.4	-14.8	9.0	-6.5	53.4	116.7	-0.5	43.4	7.5	-26.6	
○ 경공업제품	-7.5	0.0	5.7	20.0	4.4	17.1	19.8	19.6	18.5	8.1	22.2	
- 섬유직물	14.0	-2.0	5.7	28.2	3.7	20.1	21.9	21.6	20.8	12.0	27.0	
- 섬유제품	9.7	1.4	3.9	14.0	6.8	10.5	14.0	11.1	11.3	4.4	15.1	
- 플라스틱	1.1	10.7	14.9	24.6	12.9	25.1	25.1	24.8	24.6	10.8	24.4	
- 타이어	-1.6	-7.1	-6.4	1.1	-3.7	-0.3	7.7	5.1	3.9	-4.8	26.0	

자료: 산자부

<표 9> 주요지역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국 가 명	연간	1999				2000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4월	5.1-20
○ 선진국	14.2	-4.7	12.2	18.6	30.0	32.5	36.7	27.3	31.6	15.8	44.3
- 미국	29.2	12.2	26.0	28.8	47.4	43.7	42.0	33.7	39.3	18.9	50.0
- EU	11.4	0.9	14.2	10.7	17.7	25.2	28.9	23.1	25.4	7.4	67.5
- 일본	29.6	5.3	15.5	39.3	56.9	61.5	47.5	45.3	50.3	34.2	43.4
○ 개도국	3.4	-7.0	-5.0	11.0	15.0	30.8	37.3	20.4	28.5	20.6	29.2
- 아세안	15.5	15.7	7.5	14.5	23.9	20.7	20.3	20.2	20.3	21.0	29.8
- 중국	14.6	-1.8	2.8	28.4	31.0	37.6	54.6	30.6	40.1	23.1	59.3
- 중동	-2.9	-22.7	1.6	4.8	5.7	34.1	42.7	18.6	29.9	19.2	41.7
- 중남미	-2.5	-5.5	-9.4	-10.2	15.4	32.9	26.9	13.4	22.9	18.3	-13.7

자료: 산자부



**수입 : 5월 들어 수입증가율 소폭 둔화**

- 경기상승과 고유가 등에 따른 1~4월중 50%를 상회하는 급증세를 보였던 수입이 5월중에는 40.9%로 둔화.
- 이는 5월중 일시적인 원유도입단가 하락 및 지난 해 3월 이후 높아진 수입증가율에 대한 상대적 효과로 판단됨.
- 용도별로는 경기호조세 지속 및 원자재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소비재는 5월중 0.04%증가에 그침.
- 5월중 소비재 수입둔화는 지난해 방산물자 도입에 따른 상대적 효과.

<표 10> 용도별 수입

단위 :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1~20
원 자 재	-34.7	42.0	21.2	47.5	58.5	54.1	45.8	56.5
자 본 재	-36.8	53.7	39.3	45.7	59.4	55.7	51.0	57.4
소 비 재	-41.1	31.7	27.5	37.7	44.0	32.9	33.2	0.04

자료 : 산업자원부

**무역수지 : 5월중 금년들어 처음으로 두자리수(13.7억달러)흑자 기록**

- 경기상승과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1/4분기중 5.2억달러에 그쳤던 무역수지가 원유도입단가 하락 및 소비재 수입수요 감소로 수입증가율이 소폭 둔화되면서

4~5월중 15.2억달러 흑자 시현.

- 그러나 수입증가율이 여전히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1~5월중 무역수지(21.4억 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규모(90.5)의 1/4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음.

<표 11>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1~5월
통 관 기 준	수출입차	390.3	46.9	69.8	53.3	69.4	239.3	5.2	2.5	13.7	21.4
	수출 증가율	1,323.1	302.5	357.4	350.9	426.0	1,436.9	393.4	135.9	147.0	676.3
	수입 증가율	-2.8	-6.1	2.4	15.1	22.7	8.6	30.0	18.2	28.7	27.2
	수입 증가율	932.8	255.7	287.6	297.6	356.7	1,197.5	388.2	133.4	133.3	654.9
		-35.5	8.1	22.2	38.6	44.8	28.4	51.8	46.6	40.9	48.4

자료: 산업자원부

**국제수지: 경상수지 4월중 적자 기록, 반면 자본수지 흑자 확대**

-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3월중에는 1.8억달러로 축소되었으며 4월중에는 9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 이는 4월중 자동차 파업 등으로 인한 수출차질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든데다 금융기관 만기 연장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소득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임.
- 외국인 주식투자 유입 및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의 해외채권발행 및 무역관련신용 도입으로 자본수지 흑자규모는 1~4월중 112.5억달러의 흑자를 보임.

- 특히 올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증권투자수지는 88.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전체 자본수지의 약 80%를 차지.

<표 12> 국제수지

단위: 억달러

	1998	1999		2000				
	연간	1~4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1~4월
경상수지	405.6	78.2	250.0	3.2	7.9	1.8	-2.6	10.3
상품수지	416.3	93.7	287.2	6.3	7.2	9.5	5.7	28.8
서비스수지	6.3	-4.0	-10.1	-3.2	-0.9	-4.3	-1.3	-9.8
소득수지	-50.5	-17.7	-46.6	-0.9	0.4	-3.6	-8.4	-12.5
경상이전수지	33.5	6.3	19.5	1.1	1.2	0.2	1.3	3.9
자본수지	-32.5	11.9	5.8	30.0	21.9	33.5	27.2	112.5

자료: 한국은행

### 3. 물가부문

####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4~5월중 하락세

- 경기상승, 유가급등과 계절적 요인으로 1~3월중 오름세를 보였던 물가가 4~5월중에는 하락세로 반전.
-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5월중 0.3%하락했으며 생산자물가는 4월과 5월 각각 0.3%하락.

<표 13>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말비
			1/4	4월	5월	3월	4월	5월	5월
소비자물가	7.5	0.8	1.5	1.0	1.7	0.3	0.3	-0.3	0.3
농축수산물	6.0	7.3	3.7	-1.7	-0.2	-1.4	-2.4	-0.0	-1.1
공산품	11.2	0.5	1.7	0.7	0.2	0.2	-0.7	-0.1	-1.1
공공서비스	9.5	2.2	3.8	4.9	5.3	1.3	1.0	0.1	3.0
개인서비스	5.3	-1.0	0.9	2.2	2.3	1.3	0.2	0.1	2.1
생산자물가	12.2	-2.1	2.2	1.9	1.2	0.1	-0.3	-0.3	-0.5
농축수산물	3.9	10.1	0.1	-7.5	-5.8	-1.2	-4.1	1.7	-1.9
공업제품	14.5	-3.3	2.5	2.8	1.5	0.3	-0.1	-0.7	-0.8
서비스	8.1	-2.1	1.1	1.3	1.2	0.2	0.2	0.2	0.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이처럼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 수입확대, 대형할인점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개선 등으로 경기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희석되는 가운데
- 4~5월중 순조로운 기상여건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의 하락, 석유류가격 하락 영향에 따른 공업제품가격 하락에 기인.

수출입물가 : 수출물가, 수입물가 모두 상승

- 4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수출물가가 5월중에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음.

- 이는 4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원화환율이 5월중 상승세를 보였고 석유제품, D램 및 직물류의 가격이 유가상승과 수요증가 등으로 올랐기때문.
- 수입물가는 5월중 전월비 2.5%상승하면서 오름세가 지속됨.
-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오름세로 수입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수입물가 상승을 완화시켜 주었던 원화환율 하락이 5월중에는 상승세로 반전되었기 때문.
- 4월중 수입물가가 전월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OPEC의 증산합의 이후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하락했었기 때문.

<표 14> 수출입물가(원화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1/4	4월	5월		
수 출 물 가	31.3	-18.8	-0.3	1.9	-2.2	-0.2	-4.2	(-1.3)	-1.0	(0.4)
수 입 물 가	28.2	-12.1	11.0	14.7	11.2	12.3	5.8	(-3.0)	8.4	(2.5)
원 자 재	27.9	-13.2	15.8	20.7	16.7	17.7	9.5	(-3.5)	12.3	(3.2)

주: ( )내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4. 통화 · 금융부문

##### 통화정책

- 금년들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오던 M3증가율은 3월중에는 상승추세로 반전

되어 전월수준(4.7%)보다 조금 높은 5.0%를 기록.

- M2 증가율은 5월들어 33.6%로 전월(29.6%)보다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법인세 등 전월말 세수 이월 등으로 정부부문의 통화환수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함.
- MCT+증가율도 CD 및 금전신탁의 감소에 불구하고 M2증가에 따라 전월의 15.9%에서 17.2%로 상승.
- 통화지표상으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시중유동성은 풍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금융시장간 국지적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내의 가용유동성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

<표 15> 주요 통화총량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본원통화	-15.0	-7.2	12.1	15.4	16.2	22.3	12.2	19.2	23.7	28.6	21.2	19.9	21.4	21.8
M2	19.2	19.0	27.9	24.2	24.8	26.6	24.1	26.7	28.5	27.8	28.2	27.2	29.6	33.6
MCT	15.3	7.5	7.6	6.1	7.8	10.0	10.0	11.5	12.1	12.2	13.7	13.7	15.5	16.4
MCT+ <sup>1)</sup>	18.1	7.4	5.3	3.1	5.2	7.9	8.7	10.6	11.8	10.8	12.7	13.6	15.9	17.2
M3	16.3	13.9	11.4	11.5	10.4	9.6	8.3	8.1	8.3	6.1	4.7	5.0	-	-

주: 1) MCT+ = 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 기업자금사정

- 정부의 잇따른 자금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부도설과 더불어 중견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
- 투신권과 종금사는 자금공급자로서의 여력이 없으며 은행들도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출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상환압력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연쇄적 도산 우려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
- 2/4분기들어 주식발행이 일정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순상환이 지속되고 CP발행도 감소하는데다가 주식시장의 약세로 말미암아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
- 더욱이 기업들의 단기자금조달원인 제2금융권이 나라종금 인가취소(5월 3일), 영남종금 영업정지(5월 24일), 한국종금의 자금악화설 등의 영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신용불안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

<표 16> 기업의 직접금융<sup>1)</sup>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 중 증감, 억원

	98.12	99.12	99.1/4	2/4	3/4	4/4	2000.1	2	3	4	5
회사채 발행(순) <sup>1)</sup>	15,317	-3,269	30,621	24,799	-21,316	-28,014	-9,509	51,545	39,583	-8,202	-6,970
CP 발행(순) <sup>2)</sup>	-155,653	-118,798	211,341	-206,962	-50,988	-140,392	46,318	20,602	22,083	7,677	-17,522
주식 발행 <sup>3)</sup>	7,794	86,878	27,387	74,255	49,210	118,490	3,749	7,336	8,619	9,687	14,890

주 : 1) 대우그룹분 제외, ABS 등 제외  
 2) 증권사, 은행신탁, 중금사의 CP 할인액 기준  
 3) 금융기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 은행대출은 2/4분기중 급격히 늘었는데 이례적으로 9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4월에 비해 5월 들어서는 7조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증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
- 특히 가계대출이 두드러지며 중소기업대출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량중소기업에 국한된 것임.
-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일부 우량기업으로는 자금이 몰리는 반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

<표 17> 은행대출추이

단위 : 증감액, 억원

	98.12	99.12	1999				2000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은행(신탁포함)대출	-37,794	-6,593	33,107	108,107	183,762	97,540	52,947	18,428	55,015	92,744	69,798
대기업대출	-32,179	-35,982	3,222	-14,285	43,187	-18,686	32,753	-287	3,578	27,321	12,573
중소기업대출	-2,761	9,509	12,320	45,181	77,285	54,567	15,835	-1,030	12,721	30,591	22,081
가계대출	2,351	30,154	2,877	59,534	155,660	73,866	2,442	18,565	25,138	27,677	35,951

자료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 작년 하반기 대우사태로 사상 최고수준을 나타낸 이후 금년 1/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던 어음부도율이 4월 이후 2개월째 상승세.
- 이는 5월 19일 영업이 정지된 영남중금의 자기발행어음 부도와 워크아웃절차에 착수한 새한그룹의 융통어음 부도 등에 기인하는 바 큼.
- 부도업체수도 금년들어 감소세를 보였으나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경색현상을 반영하여 2/4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여 5월중 512개 기록.
-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 비율도 17.8배로 전월(18.1배)과 비슷한 수준.

<표 18>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개, 배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전국어음부도율	0.40	0.38	0.33	0.11	0.12	0.70	0.35	0.23	0.19	0.15	0.16	0.19
서울	0.36	0.30	0.34	0.09	0.11	0.75	0.38	0.24	0.19	0.15	0.16	0.18
전국부도업체수	17,168	22,828	67,182	1,932	1,662	1,477	1,647	1,620	526	495	503	512
서울	6,686	8,108	2,559	721	651	204	638	633	212	174	196	189
신설법인/부도법인 <sup>1)</sup>	3.4	2.6	12.4	10.1	12.1	14.6	13.1	17.5	15.7	24.4	18.1	17.8

주: 1) 8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금융시장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 신상품 허용, 채권투자펀드 조성 등 수 차례의 기업자금 경색 방지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 경색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 투자신탁회사와 자산운용회사 4~5개가 은행, 보험, 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활용하여 회사채 차환발행분을 주로 인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중 하나임.
- 정부는 또한 은행에 만기 3개월~1년인 단기신탁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이 상품에는 기업어음(CP)에 50% 이상, 국공채에 20%를 투자할 계획.
- 이밖에 대우 부실채권의 처리방안과 자산담보부채권 발행방안 등도 발표하였으며 여러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고, 보증보험이 이를 부분적으로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 6월20일에는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발표.
- 대우그룹의 유동성문제가 발생한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은행신탁과 투신클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은행의 저축성 예금으로 유입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대우사태 이후 금년 5월까지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이탈한 자금의 규모는 119조원이며 이중 79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은행 저축성예금으로 유입.
- 금년 들어서도 은행 저축성예금 45조원 증가한 반면,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탁고는 43조원 감소.

<표 19>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억원, 증감액 기준

		98.12 (잔액)	99.12 (잔액)	99.1/4	99.2/4	99.3/4	99.4/4	2000.1/4	4월	5월	5월 (잔액)
은행	요구불	216,454	248,114	-21,175	24,583	7,631	18,762	-43,206	44,293	-14,450	234,751
	저축성	2,129,251	2,764,397	197,856	-733	269,216	169,638	290,657	106,631	50,543	3,212,228
	CD순발행	91,856	80,310	-4,399	34,304	-31,523	150,499	10,377	-20,436	-17,531	52,720
	금전신탁	1,558,990	1,178,553	-145,396	-17,713	-76,578	-140,749	-80,797	-56,149	-54,925	986,683
	소계	3,996,561	4,271,374	26,886	40,441	168,746	198,150	177,031	74,339	-36,363	4,486,382
투신	공사채형	1,835,392	1,278,928	362,923	-82,397	-373,546	-471,372	-313,946	-64,882	-87,877	812,223
	(장기)	951,264	656,217	143,797	9,282	-148,311	-274,770	-260,326	-53,363	-28,396	314,132
	(단기)	884,128	622,711	219,126	-91,679	-225,235	-196,602	-53,620	-11,519	-59,481	498,091
	(MMF)	133,018	225,224	71,048	115,498	-101,144	-9,355	57,128	4,731	9	287,092
	주식형	83,155	555,598	39,874	184,412	139,924	108,233	93,454	12,875	-1,938	659,989
	소계	2,051,565	1,884,526	473,845	217,513	-334,766	-363,139	-220,492	-52,007	-89,815	1,472,212
증권	고객예탁금	37,773	69,919	15,524	28,159	24,761	-36,298	38,216	-6,817	-4,175	97,143
	RP	25,247	13,149	-4,157	-4,529	-3,196	-216	2,921	-3,551	1,294	13,813
	소계	131,393	83,068	-10,662	46,113	-10,228	-36,514	41,137	-10,368	-2,881	110,956
종금	자발어음	151,922	142,513	-35,188	113,100	-71,585	-25,988	6,491	-1,625	-9,078	125,623
	CMA	223,016	39,252	-6,392	14,722	-4,277	1,231	-12,351	1,519	-1,805	22,771
	어음매출	64,900	28,985	-5,906	-14,964	9,549	-3,129	-3,157	-3,264	-3,123	20,423
	소계	116,137	210,750	20,658	-39,941	-25,641	-27,886	-9,017	-3,370	14,006	168,817
	어음할인	404,053	106,037	8,360	-40,183	-20,369	-29,784	-10,117	-1,226	-3,196	77,054

자료 : 한국은행

- 금년 들어 은행정기예금, 투신사 MMF, CBO, 하이일드펀드, 코스닥시장 등으로 시

중자금이 물리면서 자금의 단기 부동화현상이 심화.

- 5월 이후에는 MMF, CBO펀드, 하이일드펀드로의 자금유입은 둔화되고 있으나, 은행 저축성예금은 꾸준한 유입세 지속하고 있음.
- 투신사 수신은 자산관리공사의 한국투신, 대한투신에 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및 추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5월중 8조 2,000억원이나 감소.
- 종금사도 나라종금 인가취소, 영남종금 영업정지, 일부 종금사의 자금악화설 등의 영향으로 수신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예금인출사태까지 발생.
-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중 부동자금이 안정적인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이동하면서 정기예금은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의 단위금전신탁과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유입.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감과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금년 들어 최근까지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투자 분위기가 냉각된 상태.
- 이에 따라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어려운 상황으로 금년 들어 5월까지 거래소시장을 통한 기업공개는 한 건도 없었음.

<표 20>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1998	1999	99.1/4	2/4	3/4	4/4	2000.1월	2월	3월	4월	5월
유상증자	134,520	173,858	52	70,853	40,126	62,827	7,764	1,943	1,587	3,486	9,868
기업공개	367	153,576	15,373	21,255	107,010	9,938	-	-	-	-	-
소 계	134,887	327,434	15,425	92,108	147,136	72,765	7,764	1,943	1,587	3,486	9,868
고객예탁금잔액	37,773	69,919	53,296	81,456	106,216	69,919	94,075	105,972	108,135	100,765	97,143
신용융자잔고	4,674	6,828	5,662	7,869	8,565	6,828	5,970	4,647	3,865	3,377	2,576

주 :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 5월 들어 주가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각국의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경제 중기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중순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 5월말 이후 현대그룹 문제의 해결기미, 미국 주가의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다시 상승.
- 외국인들은 5월중 꾸준히 소폭의 순매수세를 유지하다가 현대그룹 경영개선계획 발표를 전후하여 순매수 규모를 확대.

<표 23>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기간중 증감)

	2000.1	2	3	4	5	6.1~7p
주식순매수(억원)	14,968	21,361	40,391	-1,737	8,048	11,955
거래소	12,593	11,075	37,723	326	8,446	11,254
코스닥	2,375	10,286	2,668	-2,063	-398	701

## 장단기 금리

- 5월 들어 장기시장금리는 금융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채권공급 확대 예상, 새한그룹 워크아웃 신청(5월 19일), 현대그룹 자금사정 악화설 등의 영향으로 상승.
- 그러나 5월말 현대그룹의 유동성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시장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
- 반면, 3개월물 CP유통수익률은 은행신탁 및 투신사의 수신감소로 CP매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소폭 상승.
- 장기시장금리는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자금시장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4%p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단기금리차(국고채 - 콜)도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지표상 나타나는 회사채수익률은 일부 초우량기업의 회사채에 국한되는 금리로서 BBB급 이하의 기업들은 회사채발행 자체가 어려움에 따라 금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지표금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금리가 가격기능을 못함에 따라 금융시장내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표 24>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연, %

	97년	98년	1999년						2000년				
	12월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콜(익일) (A)	13.5	14.8	4.77	4.73	4.72	4.70	4.70	4.71	4.72	4.95	5.09	5.11	5.09
CP(91일)	14.9	15.9	6.82	7.95	8.01	7.60	7.27	7.47	7.63	7.42	7.41	7.51	7.60
국고채(3년)(B)	15.6	7.5	8.20	9.26	9.76	8.60	8.80	9.22	9.70	8.99	9.00	8.92	8.87
회사채(3년)(C)	13.4	15.1	8.58	9.88	10.41	9.12	9.53	9.85	10.25	10.01	9.98	9.94	9.89
B - A(%p)	2.1	-7.3	3.43	4.53	5.04	3.90	4.10	4.51	4.98	4.04	3.91	3.81	3.78
C - A(%p)	-0.1	0.3	3.81	5.15	5.69	4.42	4.83	5.14	5.53	5.06	4.92	4.83	4.80

주: 월 평균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 환율 및 외채 현황

- 최근 금융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신경제에 대한 거품론, 해외 신용평가사의 국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경고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향안정추세에서 벗어나 등락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한 양상.
- 이는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꾸준한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수입급증 등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지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남아 주식시장 및 통화 가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기인.
- 특히 금년초 대거 유입되었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감.
-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5월중순 이후 상승세로 반전하여 5월말에는 장중한때 1,140원을 상회하기도 하였음.

-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예약금규모가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투자자금이탈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 일부 외국신용평가기관이 지속적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신용등급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발표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00~1,12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

<표 25> 환율추이

	1997	1998	1999	1999				2000			
	12월	12월	12월	1/4	2/4	3/4	4/4	1/4	4월	5월	6/22
₩/US\$	1,415.20	1,207.80	1,145.40	1,224.7	1,155.9	1,218.7	1,145.4	1,108.3	1,110.3	1,129.4	1,118.8
변화율 <sup>1)</sup>	-67.6	14.7	5.2	-1.4	4.3	-0.9	5.2	3.2	3.1	0.8	1.7
₩/100¥	1,291.36	1,039.86	1,120.04	1,030.45	953.48	1,146.15	1,120.04	1,046.95	1,034.36	1,063.30	1,060.05
변화율 <sup>2)</sup>	-77.4	19.5	-7.7	0.9	8.3	-10.2	-7.7	6.5	7.6	5.3	5.7

주: 1) 전년말 대비 절상(+), 절하(-)율(%) 2) 월(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금년 3월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1,432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68억달러 증가.
- 이는 대외거래 확대에 따른 단기무역신용 증가 및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장기전환분 상황(67억달러)에 대비한 외화증권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하는 바 큼.
- 또한 단기외채비율이 99년말 27.9%에서 금년 3월말 30.3%로 상승하여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대외채권은 금년 3월말 현재 1,573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116억달러 증가한 규모이며 이에 따라 순채권 규모는 140억달러로 99년 9월이후 순채권 기초를 지속하고 있음.



<표 26> 외채 현황

단위: 억원, %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A)	2000. 3월말(B)	B - A
총 외 채	1,592	1,487	1,364	1,432	68
장 기	957 (60.1)	1180 (79.4)	983 (72.1)	998 (69.7)	15
단 기	636 (39.9)	307 (20.6)	381 (27.9)	434 (30.3)	53
대 외 채 권	1,052	1,285	1,457	1,573	116
순 채 권	-541	-202	93	140	47

주:(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 제 2 장

#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1. 성장

- 금년중 세계경제는 4.2% 성장하여 지난 해(3.3%)보다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01년에는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성장률이 3.9%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금년중에는 미국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유로 및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가속되는 데다 아시아 및 중남미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표 27>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계경제 성장률	4.1	4.1	2.5	3.3	4.2	3.9
미 국	3.6	4.2	4.3	4.2	4.4	3.0
일 본	5.0	1.6	-2.5	0.3	0.9	1.8
E U	1.7	2.6	2.7	2.3	3.2	3.2
아 시 아	8.3	6.7	3.8	6.0	6.2	5.9
세계교역 신장률	6.7	9.7	4.2	4.6	7.9	7.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5

- 2001년 세계경제는 일본 및 유로 경제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아시아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세계교역은 2000년 7.9%, 2001년 7.2% 증가하는 등 높은 신장세가 지속될 전망.

미국

- 미국 경제는 1/4분기중 실질GDP가 전기대비 5.4% 성장하면서 고성장세를 지속.
- 민간소비, 민간투자, 그리고 수출입 모두 증가세가 전분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면서 실질경제 전부문에 걸쳐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
-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1/4분기중 전년대비 0.9%, 전년동기대비 3.2% 상승.

<표 28>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1998	1999	99.1/4	99.2/4	99.3/4	99.4/4	2000.1/4
국내총생산(%)	4.3	4.2	3.7	1.9	5.7	7.3	5.4
민간소비(%)	4.9	5.3	6.5	5.1	4.9	5.9	7.5
정부소비투자(%)	1.7	3.7	5.1	1.3	4.5	9.3	-1.2
주거용투자(%)	9.2	7.4	12.9	5.5	-3.8	1.8	5.2
비주거용투자(%)	12.7	8.3	7.8	7	10.9	2.9	25.2
CPI	1.6	2.2	1.7	2.1	2.4	2.6	3.2
수출(Bil \$)	933.9	960.3	234.2	243.3	251.3	256.4	243.3
수입(Bil \$)	1,098.2	1,227.9	299.5	315.8	326.8	342.8	315.8
무역수지(Bil \$)	-164.3	-267.6	-65.3	-72.6	-75.5	-86.3	-72.6

\* CPI, 전년동기대비, 기간평균  
 자료 : 미 상무성, 노동성

- 그러나 미국경제는 2/4분기 들어 생산, 소비지출 및 주택관련지표들이 경기둔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2/4분기 이후 미국경제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다소 둔화되면서 연착륙할 전망이다.
- 5월중 소매 매출은 0.3%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
- OECD는 미국경제가 금년에 4.9%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CNBC는 평균 예상 성장률을 2/4분기 4.1%, 3/4분기 3.5%, 그리고 4/4분기에 3.1%로 전망.

### 일본

- 일본경제는 1/4분기중 실질 GDP가 2.4% 성장하면서 지난 두 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반전.
- 일본의 경기상승세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가 회복추세로 돌아선 데 기인. 1/4분기중 민간소비는 1.8%, 민간투자는 4.2% 상승.
- 민간수요의 회복은 지금까지 수출에만 의존해 온 일본경제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출의 축소와 제로금리의 해제 시기 등을 놓고 정책적 불안이 잠재하고 있어 연 1%의 성장률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표 29>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99.1/4	99.2/4	99.3/4	99.4/4	2000.1/4
국내총생산(%)	-2.5	0.3	1.5	1	-1	-1.6	2.4
민간소비(%)	-0.6	1.2	0.9	1.1	-0.2	-1.6	1.8
정부소비(%)	1.5	1.3	0.8	-1.3	0.9	-0.1	0.8
주거용투자(%)	-14.6	1.1	1.4	12.9	-3.2	-5.8	6.6
비주거용투자(%)	-7.5	-6.1	2.3	-2.1	-1.6	3.2	4.2
공공투자(%)	-3.5	9.3	6.2	2.8	-8.5	-5.4	-7.5
CPI	0.6	-0.3	0.0	-0.3	0.0	-1.0	-0.7
수출(Bil Yen)	50,645.0	47,547.6	11,349.5	11,671.5	12,227.2	12,299.4	12,350.4
수입(Bil Yen)	36,653.6	35,268	8,360.9	8,652.1	8,912.6	9,342.4	9,540.5
무역수지(BilYen)	13,991.4	12,279.5	2,988.6	3,019.4	3,314.5	2,957	2,809.9

\* CPI, 전년동기대비, 기간평균  
 자료) 일본 경제기획청, 대장성, 통계청, 일본은행

EU

- 1/4분기중 유로경제는 세계경기 회복과 유로화의 약세에 힘입어 GDP가 전분기 대비 0.7%, 전년동기 대비 3.2% 상승하며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가 1~3월중 2.0%, 4월에 1.9% 상승하는 등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 및 이에 대응하는 고금리조가 향후 유로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30> Euro Zone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99.1/4	99.2/4	99.3/4	99.4/4	2000.1/4
국내총생산(%)	2.7	2.3	0.7	0.6	1.0	0.8	0.7
민간소비(%)	3.0	2.4	0.8	0.3	0.8	0.5	0.0
정부소비(%)	0.9	1.5	0.9	0.1	0.3	0.2	1.0
고정투자(%)	4.4	4.9	1.8	1.0	1.7	0.4	2.1
HICP(전품목)*	1.1	1.1	0.9	1.0	1.2	1.5	2.0
수출(bn euro)	796.3	825.1	796.3	199.7	209.1	228.4	227.1
수입(bn euro)	714.6	767.1	714.6	184.5	192.4	214.0	228.2
무역수지(bn euro)	81.7	58	81.7	15.2	16.7	14.4	-1.1

\* Harmonised Indices of Consumer Prices, 전년동기대비, 기간평균  
자료) Eurostat

## 2. 원자재 가격

- 지난 3월 7일 배럴당 32달러까지 상승했던 국제유가(Brent 매도가)는 4월에 2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4월말~5월초부터 다시 상승기조로 돌아서 6월 중순 현재 28~30달러 수준을 유지.
- 최근의 유가 급등은 세계경제의 호조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산유국이 감산정책을 지속하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원유의 수급불균형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유가는 Brent油 기준으로 배럴당 27~29달러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6월 22일 OPEC은 다음달부터 1일 70만배럴 증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공급증가량은 20만 배럴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도 원유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여

전할 전망.

<표 31> 세계 원유수급 전망(기간중 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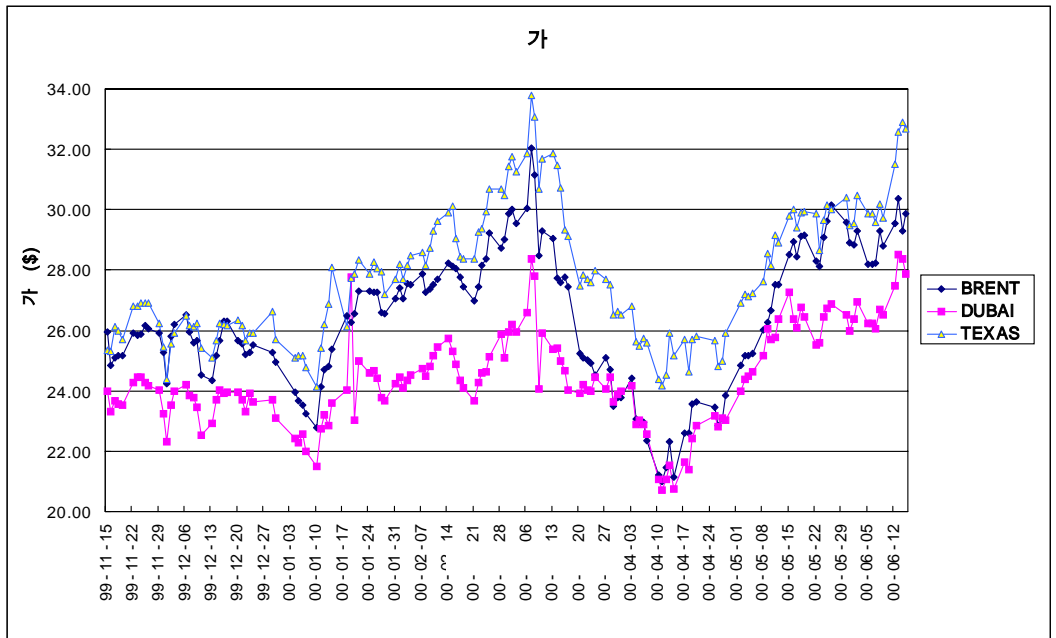
단위 : 백만배럴/일

		1999	2000 <sup>e)</sup>				
			1/4	2/4	3/4	4/4	연간
수	요	75.0	75.7	75.1	76.6	78.7	76.5
공	급 <sup>1)</sup>	74.1	75.3	76.3	76.4	77.0	76.3
	(OPEC)	(29.4)	(29.4)	(30.7)	(30.7)	(30.7)	(30.4)
과(+) · 부족(-)		-0.9	-0.4	1.2	-0.2	-1.7	-0.2

주 : 1) OPEC의 추가증산이 없을 경우를 가정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May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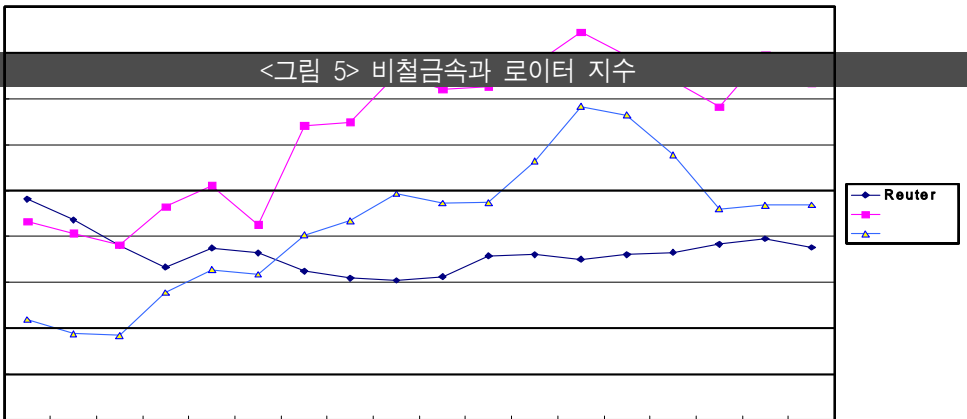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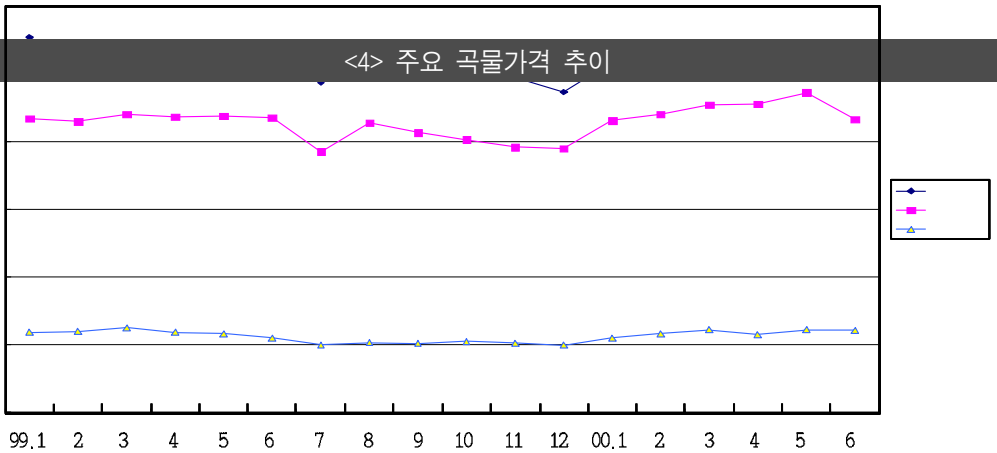
<그림 1> 원유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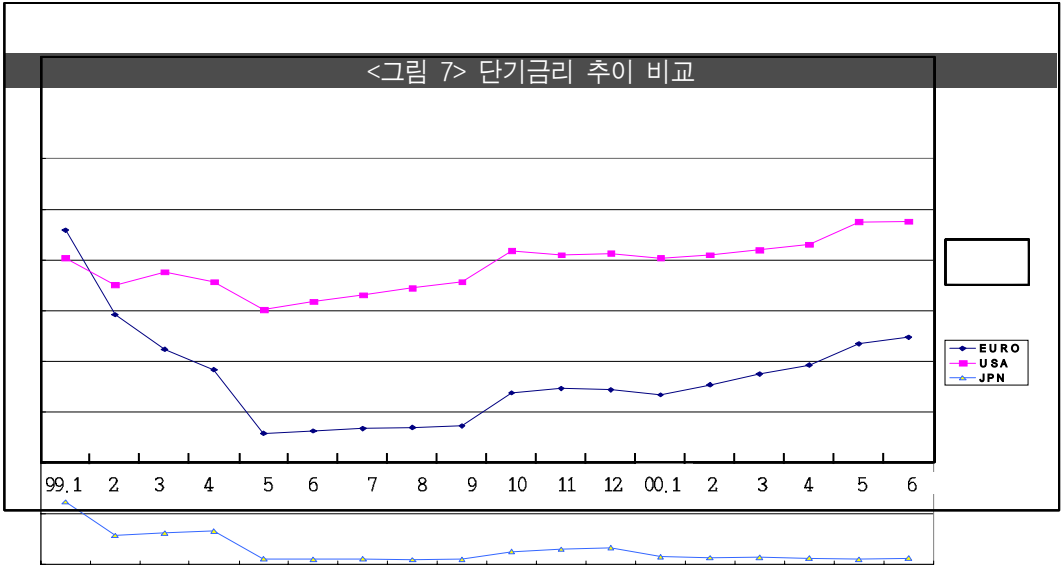


- 2/4분기 들어 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옥수수, 원맥 등 곡물가격이 하락하면서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도 하락세로 반전
-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비철금속은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곡물가격은 전세계적으로 작황이 좋을 것으로 보여 약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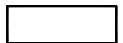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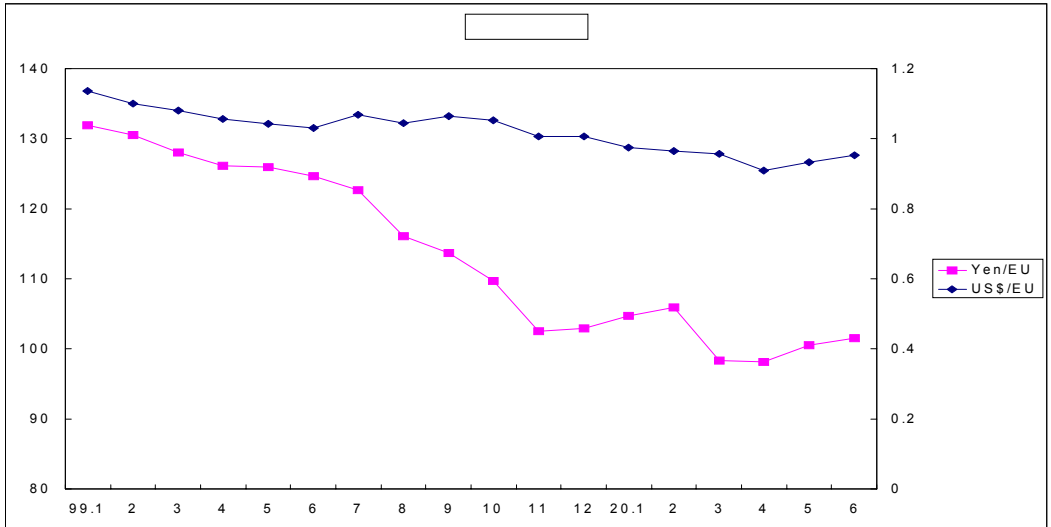






- 미국의 경기둔화 및 유로 금리인상 기대로 인하여 유로화는 그간의 약세에서 벗어나 강세추세로 반전. 유로화는 당분간 달러화나 엔화에 대하여 강세기조를 유지할 전망.

**<그림 8> 유로화 추이**



99.1 2 3 4 5 6 7 8 9 10 11 12 00.1 2 3 4 5 6

## 제 3 장

#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경제전망

### 1. 실물부문

- 우리 경제는 상반기를 정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나 성장둔화속도는 완만한 경기연착륙의 추이가 예상됨. 이에 따라 올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성장률 10.7%보다 다소 낮은 8.5%내외에 달하고 2001년중에는 6%내외(5.9%)로 추정됨.

· 우리 경제는 1/4분기중 12.8% 성장하여 '99년 2/4분기이후 연속 4분기에 걸쳐 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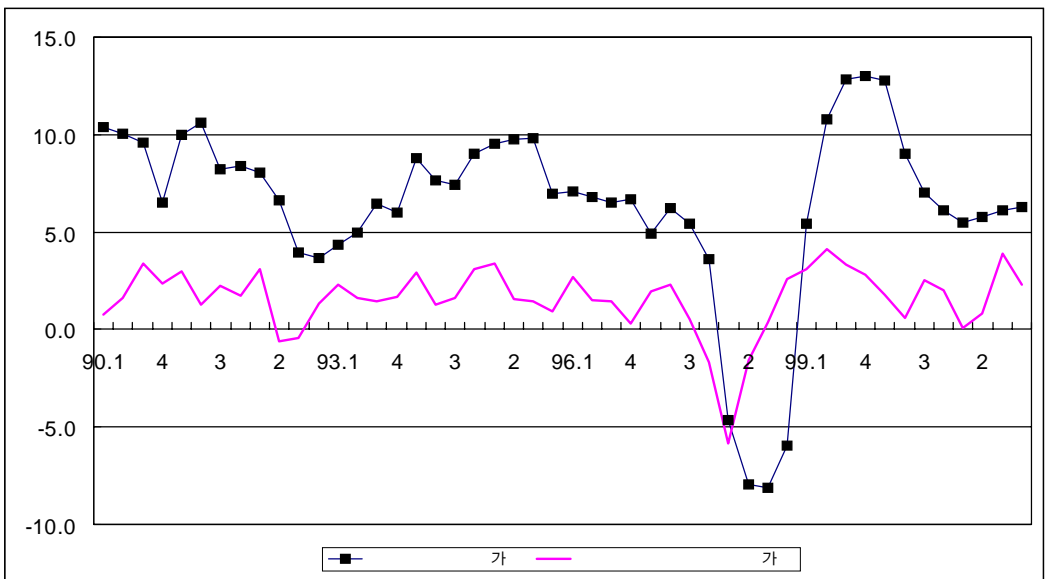
리수의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4분기이후 예상경제성장률은 한자리수로 나타나 성장속도의 둔화추이가 예상된다.

- 그러나 국내외 수요의 견조한 확장추세를 지지하는 여건의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둔화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경제의 연착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추세가 이어지고 대내적으로도 금융시장 불안정요인의 상존으로 당분간 급격한 금융긴축기조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99년 2/4분기이후 전기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성장률의 반등효과는 올 2/4분기이후 소멸될 것임.

<그림 9 > 전분기대비 및 전년동기비 성장률 추이



- 특히, 하반기이후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나 건설투자를 포함한 투자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중 경제성장률은 6.5% 그리고 연간 성장률은 8.5%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해 2/4분기이후 증가세로 반전한 재고수준은 연중 전년동기 수준을 상회하면서 재고확충에 의한 성장효과가 하반기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이같은 경기연착륙 시나리오는 몇 가지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
- 손실분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른 시장불신이 장기화하는 경우, 금년 하반기이후 금융경색으로 인한 성장저하는 실물 부문의 경기연착륙을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 국내 경제전망(2000년, 2001년)

단위: 전년동기비(%), 억달러

	1999년	2000.1Q	2000.2Q	2000.3Q	2000.4Q	2000년	2001년
국내 총생산	10.7	12.8	9.0	7.0	6.1	8.5	5.9
(제조업)	21.8	23.0	16.3	12.5	9.4	14.9	7.9
총소비	8.6	9.8	8.5	6.6	5.6	7.5	5.4
민간소비	10.4	11.3	9.7	7.4	6.3	8.6	5.8
고정자본형성	5.1	23.0	13.5	11.7	11.2	14.4	8.3
설비투자	38.3	63.6	37.6	21.7	17.9	33.2	9.3
건설투자	-10.4	-7.0	-1.8	3.9	6.3	0.8	7.4
총수출	15.7	25.1	17.9	12.4	5.7	14.7	6.8
총수입	28.9	31.3	25.2	24.0	14.5	23.2	9.2
생산자 물가	-2.1	2.1	1.8	2.3	1.9	2.0	2.8
소비자 물가	0.8	1.5	1.6	2.9	2.7	2.2	3.0
경상수지	250.2	12.9	21.7	30.8	24.1	89.5	45.9
상품수지	287.2	23.0	34.1	38.9	33.7	129.8	88.5
수출	1454.9	413.2	434.0	432.5	458.1	1737.9	1870.2
증가율(%)	10.1	31.3	21.6	18.7	9.4	19.4	7.6
수입	1167.8	390.2	399.9	393.6	424.4	1608.1	1781.7
증가율(%)	29.0	58.0	44.1	33.4	21.8	37.7	10.8
서비스, 소득 & 이전	-37.0	-10.1	-12.4	-8.2	-9.6	-40.3	-42.6
원화 환율(원/달러, 기말)	1138.0	1106.0	1110.0	1105.0	1100.0	1100.0	1080.0
엔화 환율(엔/달러, 기말)	102.2	106.6	106.1	105.5	105.0	105.0	100.0
회사채수익률(연리 %, 평균)	8.9	10.1	10.0	10.3	10.4	10.2	10.2

- 많은 기업이 연초 설정했던 의욕적인 투자계획의 집행을 하반기이후로 연기하고 있음. 이같은 투자계획의 지연은 금리수준보다 자금 가용성의 제약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하반기이후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설비투자의 신장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 현행 55개 조세감면제도의 시한이 올 연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조세 지원제도의 정비차원에서 폐지가 검토되고 있음은 투자집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가 있음.

- 최근 중국과의 통상마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교역대상국 및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통상마찰은 수출신장을 제약하고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음.
- 2001년중 추가적 재고신장에 의한 수요증가효과는 예상되지 않으나 최종수요 각 부문의 고른 성장기여로 연중 6%내외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됨.

<표 33> 최종수요부문별 기여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sup>f</sup>	2001년 <sup>f</sup>
GDP(%)	5.5	-6.7	10.7	8.5	5.9
총소비	2.2	-5.9	5.1	4.4	3.1
민간소비	1.7	-5.8	5.2	4.3	2.9
고정자본형성	-1.3	-7.5	1.5	4.0	2.4
설비투자	-1.9	-5.5	3.6	3.8	1.3
건설투자	0.6	-2.1	-2.1	0.1	1.1
순수출(수출-수입)	8.6	16.9	-0.8	-0.4	0.2
재고투자	-3.7	-5.1	5.3	0.2	0.3

주: f는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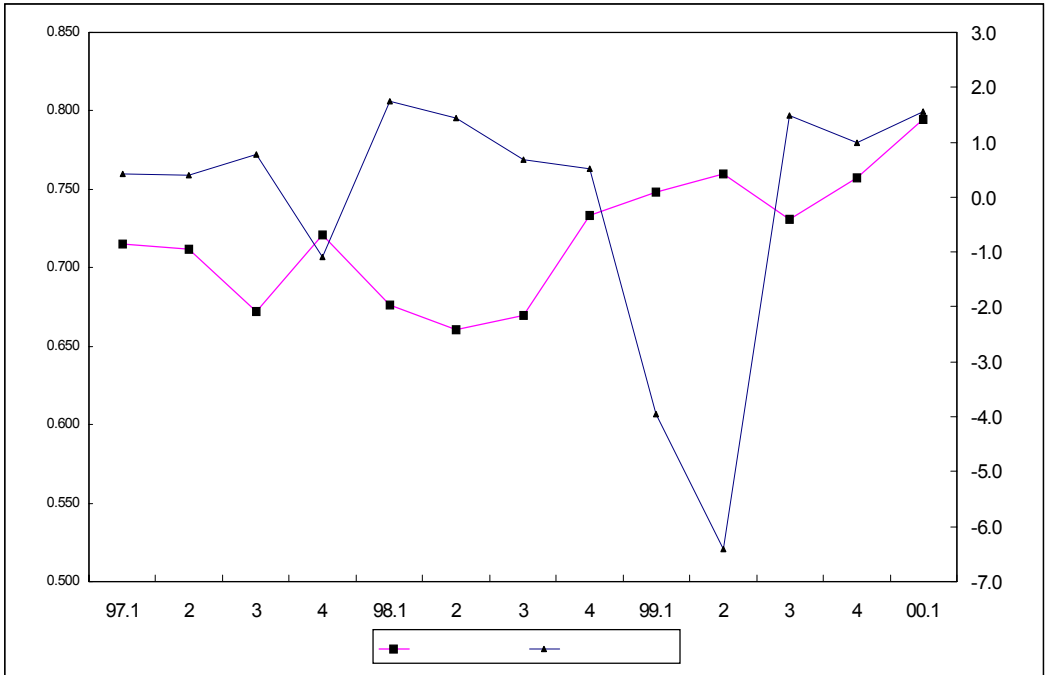
- 내년중 재정지출은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금융·통화면에서 긴축기조로의 조기 전환은 인플레이가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올 하반기이후 예상되는 6%내외의 성장하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 또한 내년 하반기중 긴축기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시차효과를 감안할 때 2001년중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큰 폭의 자산소득 증가는 예상되지 않으나 임금상승과 취업증가에 따른 가계소득의

실질증가에 기초한 안정적인 민간소비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건설부문과 기업의 설비투자도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그림 10 >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 2000년 하반기이후 반전이 예상되는 건설투자와 하반기와 2001년으로 이연되고 있는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투자지출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증대할 전망.

\* 다만, SOC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제약에 따라 민간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증가세가 건설투자를 주도할 전망.

- 원화절상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회복과 주력품목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도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 특히 통화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경제가 활기를 회복하고 있고 우려되었던 중국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WTO 가입도 연말로 예견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다만, 한·중간의 통상마찰과 위안화 변동폭 확대로 예상되는 절하효과로 인한 경쟁품목의 수출 둔화 가능성이 상존함.

- 생산활동의 증가와 향후 경기확산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자가 느는 가운데 실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 호전의 지속이 예상되어 4%미만의 실업률, 100만명미만의 실업자수가 유지될 전망.
- 예상보다 빠른 실물부문 회복과 정부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99년 2월(8.7%)을 고비로 낮아져 올 4월중 4%까지 낮아졌으나 최근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축소 속도는 크게 둔화.
- 2000년 4월 취업자수가 2천백만명을 넘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99년 4월의 59.5%에서 올 4월에는 60.9%로 높아졌으나 위기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실업률은 기간중 3%대에서 유지될 전망이나 4%를 다시 넘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 최근 건설부문의 실업자는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60만명이상에 달하고 있어 건물건설부문의 경기수준에 따라 증감여지가 있음.

## 2. 물가부문

- 소비자물가는 '99년 4/4분기이후 국제유가의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연평균 1%내외의 안정된 추이를 보인 데 이어 하반기중에는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에너지

관련제품의 가격인상에 따라 2%대의 상승이 예상됨. 연간으로는 2%내외의 여전히 낮은 상승세에 그치겠으나 2001년 상반기중에는 다소 높아져 3%대의 상승세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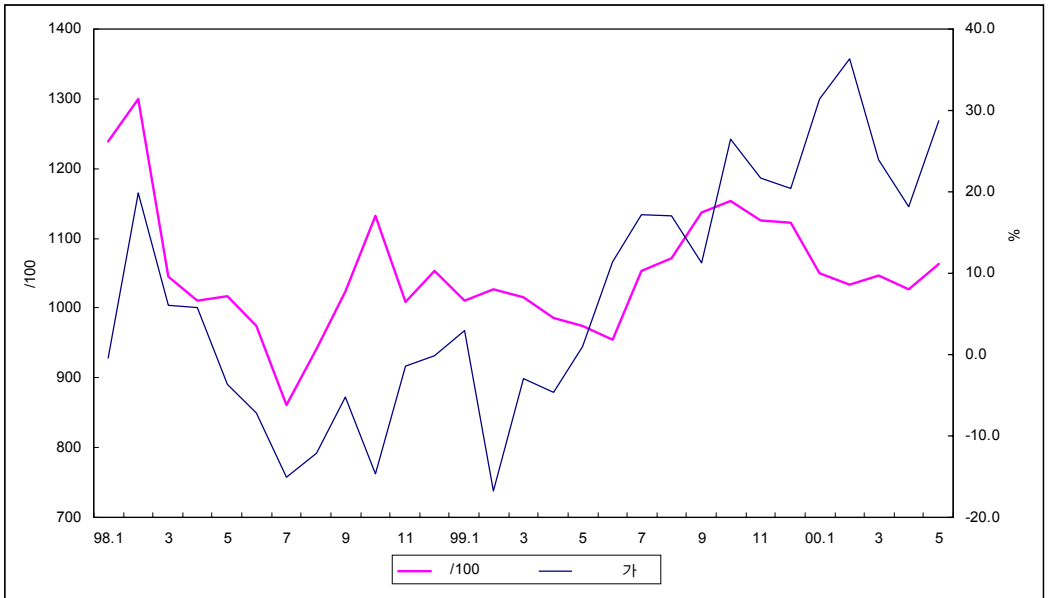
- 올해에는 지난 해에 비해 환율변동폭이 작아지고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가격과 단위노동비용 등 각종 비용요인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총수요압력이 현저한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음.
- 연중 환율은 국내외환수급을 반영, 지난 연말 1,138원/\$에서 올 연말에는 1,080원/\$내외로 절상되면서 해외 원자재가격 상승요인을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지난 해이후 큰 폭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총수요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
- 채고증감을 제외한 GDP규모의 신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 범위내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어 연중 총수요(GDP Gap)압력에 의한 물가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만,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증가가 국내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1년 상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3. 대외거래부문

- 2000년중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9년 실적에 비해 반감한 122억불 및 80억불내외로 각각 전망.
- '98년중 405억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흑자는 '99년 상반기중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흑자폭이 250억불에 그친 데이어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올해에도 수입수요증대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80억불내외에 그쳐 빠르게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 2001년중에도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대비 경상수지는 98년중 13%수준에서 99년중에는 6%대로 낮아진 데이어 2000년 2%미만, 그리고 2001년에는 1%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추세는 수출둔화와 수입증대에 따른 결과임.
- '99년 하반기이래 두 자리수 증가를 지속중인 수출은 2000~2001년중 지속적인 환율 절상으로 올 하반기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하반기이후 엔화환율은 100~105엔/달러에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화환율은 하반기중 2~3% 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 반면 수입은 올들어 상반기중 50%이상의 빠른 증가를 보인데 이어 하반기중에도 25%대, 그리고 내년중에도 성장률의 두 배정도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는 2000년중 지속될 재고와 투자확충을 위한 수입이 늘고 내년에도 안정적 실물경기 확장이 예상됨에 따른 것임.
- '98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및 이전수지 적자는 2000년과 2001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98년의 11.3억불과 '99년 37억불에서 2000년과 2001년에는 42억불 및 48억불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 4. 금융부문

##### 통화정책

- 지난 2/4분기 들어 M2 증가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M2, MCT 등 주요 통화지표의 수준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통화지표는 낮지않은 수준이나 국지적인 금융시장 경색현상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당분간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실행과 금융시장 안정기조 유지에 통화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질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6월초 국내 유가인상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의 인상과 본격적인 노사간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어 경기상승속도 둔화에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의 단기금리 인상압력은 꾸준히 상존할 전망이다.

**기업자금사정**

- 투신 및 증금사의 구조조정, 일부 대기업의 자금악화설, 은행의 반기결산을 앞둔 보수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은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부유보자금의 증가로 금년도 하반기에도 신규자금수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하반기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와 더불어 투신사와 증금사의 자금 공급 여력 상실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부 기업의 자금악화 가능성.
- 특히 금년들어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보다 CP 등 단기성 자금조달에 의존했던 기업의 재무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표 34> 회사채 및 주요 간접투자상품 월별 만기도래 추정**

단위 : 조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사채	2.40	3.20	5.54	2.57	2.65	2.62	3.50	9.76	
단위형금전신탁	3.04	1.95	1.80	0.80	0.60	1.55			
뮤추얼펀드	0.32	1.23	0.43	0.45	0.21	0.25	0.66	0.80	
주식형수익증권	5.30	7.00	11.76						-

주 : 주식형 수익증권의 중도환매분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  
 자료 : 금융감독원, 투신협회, 증권협회  
 · 이는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 자금시장 불안을 불식시킬 강도높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회사채에 대한 차환발행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극심한 자금경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장단기 금리

- 통화당국의 단기금리인상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콜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환율 및 유가에 따르는 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 금융구조조정 진행에 따르는 시장 불안감 확대를 막기 위해 큰 폭의 단기금리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 수 차례에 걸친 자금시장 안정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금리안정의지와 금융시장 불안감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 요인이 교차하면서 장기지표금리인 국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 7월의 시가평가제 시행과 투신사 및 중금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채권물량 조절과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을 통해 일정수준의 금리 목표선을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 기업의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한 회사채부분보증제도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장기금리가 안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정부의 획기적인 금융시장대책이 없는 한 금융시장내의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상존할 전망이다.
- 장기금리가 급락할 경우 통안증권 및 국고채 입찰 실시가 예상되며 금리 급등시에



는 신축적인 채권물량 조절이라는 정부의 개입이 예상된다.

-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단기성 채권운용도 예상되어 장기금리의 상하한선이 모두 제한되는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 최근 은행 및 투신 등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단기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자금의 단기 부동화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금융시장의 국지적인 경색현상이 심화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장기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채권매매가 단기 딜링에 치우칠 가능성.
-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고 회사채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회사채수익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표 35> 2000년중 장단기 금리 전망

단위 : %

	1999.12	2000(E)				
		1/4	2/4	3/4	4/4	연간
콜	4.71	4.90	5.08	5.30	5.80	5.27
회사채	10.06	10.1	10.0	10.3	10.4	10.2

주:기간 평균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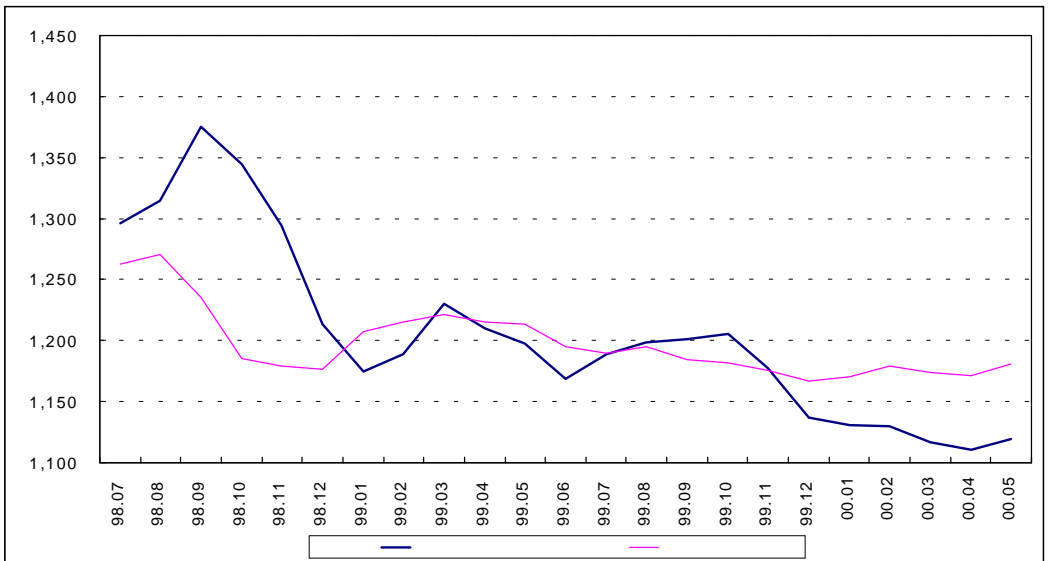
## 환 율

-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모형에 의한 실질실효환율 차원에서 원화의 적정환율은 1999년 중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0년 들어 안정적인 모습.
- 반면 실제 환율은 2000년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작년 12월이후 실질실효기준

적정환율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모습

- 5월말 현재 실제환율은 실질실효환율기준 적정환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그림 12> 실제환율과 적정환율(실질실효환율 기준)



- 최근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환율수준에는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정도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규모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투신을 비롯한 금융권의 구조조정,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하락 가능성, 동남아 통화가치 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
- 5월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전월말 대비 22억 1,000만달러 증가한 868억 2,000만달러에 달하고 거주가 외화예금도 1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원·달러환율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표 36>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달러

	1997	1998	1999	1999년				2000년		
	12월	12월	12월	1/4	2/4	3/4	4/4	1/4	4월	5월
외환보유고	204.1	520.4	740.5	574.5	619.9	656.8	740.5	836.5	846.1	868.2

자료 : 한국은행

-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추세와 외국인 직간접 투자가 이어진다면 원·달러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다만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원·달러환율의 하락은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도 상존.
-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기준 1,100원에서 형성될 전망.

<표 37> 2000년중 환율 전망

단위 : %

	1999.12	2000				
		1/4	2/4(E)	3/4(E)	4/4(E)	연간(E)
원·달러환율	1138.0	1106.0	1110.7	1105.0	1100.0	1100.0
엔·달러환율	102.2	106.6	106.2	105.5	105.0	105.0

주 : 기간말기준

## 제 4 장

#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1. 최근 경제현황

#### 가. 경기활황세의 둔화

- 지난해 2/4분기 이후 활황세를 보이던 경기상황이 금년 1/4분기를 고비로 그 성장세가 둔화되어 가고 있음.
- 1/4분기 중 계절조정 실질GDP가 전기대비 1.8% 증가하여 전분기의 2.8%보다 신장세가 둔화. 선행지수가 금년 들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월중 하락세로 반전.
- 생산활동과 소비행위도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대의 생산증가율이 3, 4월 중 10%대로 하향.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0%를 하회하고 있으며 4월중에는 자동차 파업 및 총선의 영향으로 76.4%로 크게 하락.
- 전년 하반기 중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던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금년 들어 10%대로 증가세가 완화.
-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기의 위축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50% 증가에 달하는 설비투자도 최근 자금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나. 물가의 하향 안정추세 지속

- 4분기간 계속되고 있는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세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직까지 현재화되지 않고 있음.
- 금년중(1-5월간) 물가상승률은 0.3%에 그치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5월말 물가상승률도 1.1%에 머무르고 있음.
- 경기상승과 유가급등으로 금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물가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4월, 5월에는 감소세로 반전.

#### 다. 경상수지의 감소

- 수출증가세를 뛰어 넘는 수입증가세의 지속으로 금년 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1~5월 중 무역수지(21.4억 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규모(90.5억 달러)의 1/4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음.

#### 라. 금융시장의 국지적 경색현상

- 새한 및 현대그룹의 유동성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확산되면서 신용경색 현상이 재현되고 있음.
- 동시에 투신권 구조조정, 시가평가제 실시 예정, 종금사 유동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견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로 신용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표 금리인 회사채금리는 10%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BBB+급 이하 기업의 CP 및 회사채는 차환발행이 중지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음.
- 대미 환율: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환율도 변동.
-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5월 중순 이후 금융시장 불안심리, 일부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등의 영향으로 1,130원대로 상승.
- 이후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1,110원대로 하락.

## 2. 향후 거시경제 정책방향

### 가.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

- 최근의 경기상황이 12-3%에 이르는 고성장세로 인하여 경기과열이 우려되고 있지만, 그 상승속도가 완화되고 있고, 또한 하반기이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총수요관리측면에서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인상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하반기중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수입증가세 둔화가 예상됨. 따라서 경상수지 방어를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미약함.
- 한편, 금융구조조정에 따르는 금융경색현상이 예견되므로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유연한 통화정책의 운용도 요구됨.
-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가능한한 조속히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하지만 금융경색, 해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거시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재정의 자동제어 기능(automatic stabilizer)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금융권 구조조정 재원 등과 같이 필요한 자금 소요처에는 신속히 자금을 투입해서 실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음.

#### 나. 금융권 구조조정의 원칙 재검토와 거시정책대응

- 1998년 큰 폭의 금융권 조정이후 정부는 취약 금융기관의 존속을 위해 자금을 지원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하지만 공적자금지원 기관들이 자생력을 회복하여 가는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향후 정부가 공적자금을 사용 금융기관에 개입해야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방식에 의한 정리를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차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은행과 증권사가 퇴출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금융시장과 금융질서의 큰 교란이 없었음. 오히려 뚜렷한 이해당사자들의 책임분담이 이루어졌음.

- 지금과 같은 회생원칙의 정부개입방식은 취약금융기관들이 강도있는 자구노력을 하기에 앞서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용이한 탈출구에 의존하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음.
- 공적자금의 투입에 있어 어느 만큼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양적인 해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퇴출원칙의 정부개입이 개시되었을 때 취약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의 강도를 높이는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이런 원칙 전환에 따른 단기금융경색의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중앙은행이 한시적으로 적극적인 최종 대부자기능(last resort)을 수행하여야함.
-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상술한 정책기조를 발표한다면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인플레이션 대비책 마련

- 금년 중 물가상승압력은 아직 현재화되고 있지 않음.
- 이는 환율절상<sup>1)</sup>, 대형할인점 및 전자상거래 등의 유통혁신<sup>2)</sup>, 노동시장의 유연화, 합

1) 99년중 원화환율은 5.5% 절상되었고, 금년 1/4분기중에도 2.8% 절상됨(2000.3말 1,106₩/\$ ← 1999년말 1,138₩/\$ ← 1998년말 1,204₩/\$)



리적 소비행위 강화, 경제개방화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금년 중에는 국제원자재가격 강세, 임금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등 물가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는 데다 향후 경기상승세 지속시 경제내의 여유공급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잠재.
- 선제적 긴축정책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물가상승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시중에 유동성이 대규모 공급되어 있고 단기 부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M3증가율은 금융자산의 주식화 등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M2증가율은 금년중 3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의 잠복요인으로 남아 있음.

2) 1996년부터 대형할인점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유통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나타난 직접적 효과만을 측정하더라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연간 0.45%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은행 조사국, “유통구조 변화가 물가에 미친 영향,” 2000.1).

# 부 록

---

경제정책정보

---

주요경제통계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2/1	정부	<p>「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관련 투신·증권사의 유동성 확보 현황과 대책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우무보증채권 매입, 증권금융채권 발행 및 채권시장안정기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철저히 대비</li> <li>○ 개별 투신·증권사별로 구체적인 자금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환매에 대응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중점 점검</li> <li>○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금리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투신·종금사의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병행 추진</li> </ul>
2/9	정부	<p>「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경제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제고를 2단계 구조개혁의 목표로 삼고 3대 원칙*하에 2000년중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li> <li>* ① 시장 인프라 확충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 ②수익성제고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③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li> <li>-金融부문에서는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채권시장 육성과 주식시장 다변화를 통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li> <li>-企業부문에서는 자발적인 기술혁신 및 수익성 제고, 중소기업·벤처기업의 新성장축으로의 육성 등으로 기업가치 고양의 토대를 조성</li> <li>-勞動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성과배분 참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평생직업의 토대를 조성</li> <li>-公共부문에서는 정보화, 공기업 민영화 및 자율책임에 의한 경영체제 구축으로 지식형 열린 정부를 구현</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2/10	한국은행	콜금리 목표 수준을 4.75%에서 5.0%로 0.25%p 인상
2/16	정부	<p>「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까지 電子商去來 先進國으로의 跳躍을 목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5大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 과제를 持續的으로 推進</li> <li>○ 5대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등 市場의 信賴性을 確保할 法·制度를 今年末까지 完備</li> <li>-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초고속통신망, 물류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電子商去來 인프라 擴充</li> <li>- 정부조달·국방·건설·공기업 등 4대 公共部門에서의 電子商去來 促進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li> <li>- 부품조달·생산·물류·판매 등 기업활동 전과정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産業部門 電子商去來體制 構築</li> <li>- 글로벌 電子商去來時代에서의 輸出 競爭力 提高를 위한 사이버 貿易基盤 造成</li> </ul> </li> <li>○ 또한 현재의 사비버몰 중심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무역부문에도 확대하기 위해 2002년까지 총 727억원(정부 513, 민간 214)을 투입하여 전자·자동차 등 8개 주요산업*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법규를 정비할 계획</li> </ul> <p>* 8개 산업 :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전력·유통</p>
2/25	재정경제부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4월중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업 임직원자격의 제한기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요건 등 법률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신설</li> <li>○ 예금보험공사, 금융지주회사를 신용정보법상의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신용정보업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 정책
2/25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보증총액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서 개인의 보증현황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li> <li>○ 외국인의 신용정보회사 지분제한(50%초과금지)을 폐지</li> <li>○ 업무상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의 교환이 필요한 유동화전문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정리금융공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li> </ul>
2/29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財政經濟部 및 金融監督委員會,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 방안 발표</li>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조조정회사(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li> <li>-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CRV로의 출자, 개인투자자의 CRV 주식거래, CRV가 취득한 기업주식 거래에 따른 조세부담을 면제</li> <li>-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li> <li>-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li> </ul> </li> <li>○ 향후 CRV 설립 작업반을 구성하여 제도 보완 및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후 관련 法을 제·개정할 방침</li> </ul>
3/3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보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개 초안 발표</li> <li>○ 4월까지 은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2001.12.31부터 시행할 예정</li> <li>○ 동 제도는 은행이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외환 및 관련파생상품(trading books)에 대하여 주가, 금리,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market risk)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의 보유를 의무화한 것으로 은행에 대한 “제2차 자기자본규제 제도”임</li> <li>○ 동 제도 도입시 시장리스크 노출규모가 큰 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관리체제 강화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3/27	재정경제부	<p>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식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누적된 금융부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주도의 1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왔음</li> <li>○ 그러나 시급한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지금은 정부가 전면에서 금융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금융기관들이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시장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시기임</li> <li>○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개혁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간접적인 역할을 통해 시장중심의 금융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li> </ul>
3/30	금융감독원	<p>상장기업 등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의무화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시하여 상장법인 등이 이를 따르도록 권고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동 기준 준수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임</li> <li>○ 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당해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li> <li>○ 시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보고서 :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부터 적용(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차례로 적용)</li> <li>· 유가증권신고서 : 4월 이후 제출되는 신고서부터 적용</li> </ul> </li> </ul>
4/5	한국은행	<p>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통화위원회는 현 7%의 거주자계정 기준율을 저축성예금의 경우 2%</li> <li>○ 요구불 예금의 경우 5%로 인하하여 4.8일(4월 상반월 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키로 하였음</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4/10	재정경제부	<p>국채통합발행제도 시행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시장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 하여 동일종목의 발행금액을 대량화하는 제도</li> <li>○ 5월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이후 발행하는 3년만기 이상 국채 발행시부터 통합발행제도를 실시할 계획</li> <li>○ 동 제도를 통해 국채유동성을 제고하여 국채지표금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채발행비용을 절감하며 1회 대량발행에 따른 발행금리 상승 등 채권시장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4/15	금융감독원	<p>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소속부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시장 제 1·2부, 외국부 및 증권투자회사부 구분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 정비</li> </ul> </li> <li>○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수익률 신고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법인의 배당결의시 사업연도말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신고하도록 의무화</li> </ul> </li> <li>○ 2000. 5.2일부터 시행</li> </ul>
4/20	한국은행	<p>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품업체가 물건을 납품한 후 구매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약정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자금을 용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li> <li>○ 동 제도의 실시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쇄부도의 폐해를 방지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 5.22일부터 시행</li> </ul>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 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년 동 기 대 비 (%)				
1995년	8.9	11.3	10,823	9.6	0.8	11.9	18.1	8.0
1996년	6.8	6.8	11,380	7.1	8.2	7.3	9.1	6.1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6.7	-7.4	6,742	-11.4	-0.4	-21.2	-38.8	-10.1
1999년	10.7	21.8	8,581	10.3	-0.6	4.1	38.0	-10.3
1998년1/4	-4.6	-5.2	-	-11.6	0.8	-19.9	-37.7	-5.1
2/4	-8.0	-10.7	-	-13.0	-1.0	-23.9	-46.5	-7.8
3/4	-8.1	-9.5	-	-12.3	-0.2	-22.4	-40.4	-11.6
4/4	-5.9	-4.2	-	-8.9	-1.1	-18.3	-28.0	-13.9
1999년1/4	5.4	10.7	-	6.7	-2.0	-4.2	13.0	-13.6
2/4	10.8	21.5	-	10.3	-1.7	4.9	37.3	-8.5
3/4	12.8	27.3	-	12.1	0.1	7.0	48.5	-9.8
4/4	13.0	27.2	-	12.1	0.8	7.6	55.1	-10.2
2000년1/4	12.8	23.0	-	11.2	0.7	22.4	63.6	-7.0

무역 · 국제수지

연 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 환 보 유 액 <sup>1)</sup> (기말)	대미 환 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3년	822.4	7.3	838.0	2.5	23.2	9.9	183.0	808.1
1994년	960.1	16.8	1,023.5	22.1	-28.6	-38.7	224.1	788.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239.9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6	-230.0	294.2	844.2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5.6	485.1	1,207.8
1999년	1,436.9	8.6	1,197.5	28.4	287.2	250.0	740.5	1,145.4
1999년7월	117.5	17.2	97.8	37.9	27.3	27.9	639.8	1,206.9
8월	113.7	17.1	98.6	38.5	16.1	17.5	647.8	1,184.6
9월	119.7	11.3	101.3	39.6	25.9	22.1	654.8	1,218.7
10월	134.5	26.5	113.6	48.5	26.4	21.1	662.1	1,200.5
11월	142.0	21.7	117.3	40.9	22.2	22.1	696.8	1,157.5
12월	149.6	20.4	125.8	45.4	21.9	14.0	740.5	1,145.4
2000년1월	121.7	31.4	125.9	45.9	6.3	3.2	767.9	1,122.1
2월	127.3	36.3	120.2	57.5	7.2	7.9	797.3	1,131.8
3월	144.4	23.9	142.1	52.7	9.5	1.8	836.5	1,106.0
4월	135.9	18.2	133.4	46.6	5.7	-2.6	846.1	1,109.2
5월	147.0	28.7	133.3	40.9	-	-	868.2	1,129.4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97년, 98년, 99년 7월 데이터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 월	물가 <sup>2)</sup>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sup>3)</sup>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 <sub>2</sub>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평균	기간평균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3.2(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5.3	13.4	652.9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7.5	15.1	408.6
1999년	-2.1(0.9)	0.8(1.4)	6.3	14.7	27.9	7.6	8.9	806.8
1999년7월	-3.0	0.3	6.2	14.2	24.2	6.1	8.6	971.4
8월	-1.6	0.9	5.7	17.2	25.0	7.8	9.9	933.1
9월	-1.1	0.8	4.8	25.9	26.6	10.0	10.4	926.9
10월	-0.2	1.2	4.6	9.8	24.0	9.9	9.1	828.6
11월	0.6	1.4	4.4	14.1	26.7	11.5	9.5	950.1
12월	0.9	1.4	4.8	22.8	28.5	12.2	9.9	984.5
2000년1월	2.0	1.6	5.3	22.9	27.6	12.2	10.3	952.5
2월	2.1	1.4	5.3	3.5	28.2	13.7	10.0	902.7
3월	2.4	1.6	4.7	4.4	27.2	13.7	10.0	878.4
4월	1.9	1.0	4.1	-	29.6	15.5	9.8	779.8
5월	1.2	1.1	3.7	-	33.6	16.4	9.9	720.8

주:2) (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 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건축허가면적		
	전산업	평균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sup>4)</sup>	국내기계 수주 <sup>5)</sup>	기계류 수입 <sup>6)</sup>	건설수주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4년	10.9	81.3	8.7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년	12.0	81.0	8.0	7.4	15.8	31.5	24.4	1.0	3.3	-1.2	
1996년	8.7	80.8	7.0	5.8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4.7	79.2	3.2	-1.6	3.3	-22.8	5.4	-0.4	-26.2	2.6	
1998년	-6.5	68.0	-12.7	-21.0	-30.5	-52.9	-42.6	-55.0	-68.2	-50.3	
1999년	24.2	76.6	13.0	21.1	22.6	33.5	0.8	42.3	179.8	43.2	
1999년7월	35.1	80.3	19.4	24.7	29.5	43.2	0.1	49.0	243.7	39.6	
8월	31.7	79.2	19.1	32.9	29.1	44.6	1.0	109.3	288.4	114.3	
9월	20.3	79.4	14.6	21.2	10.6	48.3	36.5	81.6	204.5	111.5	
10월	33.5	78.5	16.2	28.8	24.2	58.4	33.9	277.7	353.2	358.8	
11월	29.0	80.3	16.2	25.4	3.7	54.0	17.5	120.7	315.8	119.2	
12월	24.6	80.6	14.9	20.1	14.2	73.8	8.9	172.3	215.5	200.9	
2000년1월	28.1	80.3	16.6	20.9	17.8	56.7	105.3	89.4	403.9	62.1	
2월	25.4	78.7	13.9	19.2	19.8	81.0	74.5	67.1	200.7	59.8	
3월	17.6	79.8	12.8	13.6	17.5	57.5	55.7	108.4	233.6	87.2	
4월	16.9	76.4	11.4	16.6	25.1	60.2	-4.4	101.2	260.0	73.5	

주 : 4) 내수용 5) 내수용,선박제외 6) 94년이전 수치는 선박제외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관1쇄 인쇄/2000년 6월 27일

1관1쇄 발행/2000년 6월 30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이수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진경런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

ISSN 1229-5396

3,000원